

오늘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중 찬양대 임명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집회는 선교회별 모임입니다.

: 사회봉사부 회의가 오늘 예배 후 자모실에서 있습니다.

: 문화부 회의가 오늘 3:00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고난주간 기도회가 21(월)-25(금)일 저녁 7:30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기도회 관계로 수요일집회와 새벽기도회는 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새벽예배가 오전 6시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예배 중 성찬식이 있습니다. 부활절 세례식은 오후 1:30 2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하루 30분씩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1부	행 10:34-43 / 시 118:14-24	2부	교후 4:10-12
예배	고전 15:19-26 / 눅 24:1-12	예배	

오늘 식당 봉사 : 정경례 김진선 권현숙 서미경 유중희 김명희 박명제 김재환
 다음 주 식당봉사 : 김운정 최은미 박시내 김명하 이현숙 조병주 오형일 이광욱
 오늘설거지봉사 : 7여선교회 (40세-)
 다음주설거지봉사 : 청년부
 커피 판매 봉사 : 6여선교회
 떡 대 접 : 박안수 이윤석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처 부	10:50	유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의
 주님의
 오
 모으로
 상의소식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종려주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주님 나라는(×3)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6. 구세주를 아는 이들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기적 같은 봄날이 더욱 괴롭게 느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생이 가져다 준 문제들에 짓눌려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은총의 햇살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 새로운 생명의 싹들이 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봄꽃 같은 함박웃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고난주간의 순례를 통해 주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가게 도와주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남들을 쉽게 희생시키는 세상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게 하시고, 너를 위해 나를 내어주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사 53:5 인도자

♣ 교 독 문 129. 종려주일 다 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함께

대표기도 안홍숙 권사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139.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다 함께

♣ 성경봉독 I. 시118:1,2,19-29 눅19:28-40 배동준 선생

II. 눅 22:39-46 임주빈 권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맞으라 왕의 왕 찬양대

말 씬 I. 찬미 받으소서, 평화의 왕 이범석 목사

II. 왜들 자고 있느냐?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 헌금 영수기 및 속회 보고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인식	김정숙	김근종	정옥영	김애경	김애순	김용진	박효선	김정수	정자현
김종문	지명주	김현영	김희진	박홍재	문금석	박상우	박용철	김윤정	정백의
송동준	김진경	양상철	박재란	오미숙	오숙현	윤미경	이국노	김미화	이용석
이우상	이계월	이주영	안상숙	이주영	오재영	이진영	한양미	이한림	김명희
임서영	임선양	신현숙	임형욱	장동훈	정은선	전영린	김행자	전인섭	정영례
정진호	양순임	정민경	정현모	정현선	유병선	정현숙	최 숙	최철수	곽권희
한상경	허명선	허준호	홍성식	이유리	황지현	무명2			

감사헌금

강인식	김정숙	김 근	김성순	김용길	최영혜	김인하	김필순	김해선	박옥순
송동준	김진경	안정준	이가원	이유일	김미희	이은혜	장성호	강영희	주은총
홍성식	이유리	황현성	이오복	무명11					

생일감사헌금

곽정자 정완수 윤수진

녹색꿈헌금

김재환 김진선 김향자 박순섭 권미숙 이건호 김보민 임설희 무명4

속 명	인도자	모일 곳	속 명	인도자	모일 곳
예루살렘	박성희	박성희	청 파1속	김재흥	교 회
안 디 옥	최경미	정복순	청 파2속	송형운	
가 나 안	장영숙	최종미	청 파3속	하현철	
베 다 니	박홍재	김경수	청 파4속	김정민	
시 온	권미숙	권미숙	청 파5속	장영숙	
에 베 소	백혜숙	김금순	청 파6속	신진식	
빌 립 보	곽권희	윤미경	청 파7속	김재환	
가버나움	안홍숙	야외	청 파8속	이범석	
나 사 렛	김경혜	김경혜	청 파9속	김인걸	
			청 파10속	장영숙	

찬양대원

- 대장 - 정종삼
- 지휘 - 강석남
- 반주 - 최윤선(오르간) 유청빈(피아노)
- 소프라노 -
- 강상연 박예림 서해나 오현정 이경희 이부곤 홍순복 홍예선
- 메조소프라노 -
- 구명자 김명희 박성희 송양진
- 알토 -
- 박경선 유지은 윤 윤 이고임 정아름 정옥영 최성애 홍선희
- 테너 -
- 박영규 심해성 안길상 이광섭 이종현 이치림 정다운 조관행 한상의
- 베이스 -
- 김근중 마준혁 박규석 박다니엘 변상철 이광석 이한림 장원호 정종삼 조항범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신진식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장로 : 한완식 한상의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휘 : 강석남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김현동	

찬양 457. 겿세마네 동산의 다 함께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왜 자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일어나십시오.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십시오. 깨어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다함께: 아멘.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도 잊은 채 깊은 잠에 빠져 살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앞서 가신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선교회	저녁 고난주간 기도회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신진식 전도사	공동기도	이재애 선생
	2부	김기석 목사	임주빈 권사	유경순 권사

3	영접위원	박홍재 이민범 박석희 이증자 조항미 오자영 이현순
	헌금위원	하현철 권미숙

믿음으로 읽는 글

십자가

윤동주 시 || 채일손 곡

쫓아오는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어 있네(였습시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 갈 수 있을까(가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피로왔든 사람(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어)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이) 흘리리라(졌습니다)

*()는 원문

1941년 5월 31일. 윤동주가 원고지에 참하게 써내려간 ‘십자가’원본 끝에는 시를 지은 날짜가 적혀 있다. 해방을 맞고 전쟁을 지나 37년이 흐른 뒤 이 시는 노래로 다시 지어졌다. 백성과 세상을 향해 눈 감고 귀 닫은 교회와 국가의 태도가 그때와 다르지 않다. 75년이 지난 현재도 우리의 시대상황은 매한가지다. 시인의 예민한 의식은 종교와 국가를 품고 신앙의 절정을 노래한다.

쫓아오던 햇빛이 교회당 꼭대기 십자기에 걸린 것은, 할 일을 할 때가 되었다는 것.

첨탑이 높아 오르지 못하는 것은, 할 일이 이렇게도 많은데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교회가 정부가 신자가 할 일을 하지 않으니 종소리도 울리지 않는다.

시인은 안타까움에 서성거린다. 휘파람을 분다. 그리고 이 부박하고 심란한 시대에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차라리 행복하다고 한다. 피로왔던 사람 예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보다 더한 역설이 있을 것이며, 이처럼 장르를 넘어선 반어법이 또 있을까.

그리고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조용히 흘리겠다고 노래한다. 생색을 내고 홍보에 들뜬 작금의 교회를 꾸짖는다. 최후에 흘릴 순교의 피도 남모르게 흘린다는 것의 아름다움이 여기 있다.

고등학교 때에 감동으로 다가와 마침내 신앙고백으로 자리매김하여 삶의 화두로, 인생의 지표로 실천의 본이 된 윤동주의 ‘십자가’

교회가 사회와 역사를 대하는 안목을 길러 주었고 속 신앙까지 눈뜨게 해준 스승 같은 시다. 비교적, 하는 일을 감추고 이름 내기를 삼가고 묵묵히 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시 덕분이다.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끝에서 무심하게 사라지거나 싱겁게 돌아설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 것도 이 시에게 빛진 덕목이다.

끝내, 침묵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덧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같은 반 친구가 교회에서 아는 형에게 배워왔다고, 악보도 없이 부르는 것을 받아쓰며 코드를 만들어 외워 놓았던 노래입니다.

10년이 지난 1989년 첫 음반을 녹음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린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미국에서 들어온 노래들이 난무할 때 우리 언어, 우리 역사, 우리 정신이 담긴 노래였기에 첫 노래로 당당할 수 있었던 귀한 곡입니다.

- 홍순관, 「나는 내 숨을 쉰다」(꽃자리) 중에서